



과자·라면을
음료·디저트로
맛의 경계 허문다
L1

metro[®]

Life

셀트리온
분기 영업이익
첫 5000억 돌파
L2



청년의 첫 출근부터 숲의 새 생명까지... 함께 키워가는 내일

하나증권의 사회공헌을 관통하는 것은 '함께 성장하는 관계'다. 장애인 청년에게는 일할 기회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는 건강과 진로를 돌볼 기회를 전한다. 임직원이 나눈 경험은 대학생을 거쳐 아동과 청소년의 배움으로 이어진다. 한 사람의 성장이 또 다른 사람의 내일을 돕는 나눔이다.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증권은 이 약속을 꾸준한 동행으로 채워간다. 계절마다 이웃을 다시 찾는 봉사부터 가족과 함께하는 해안 정화, 생태계 보전과 탄소금융까지. 사람을 키우고 인연을 이어가며, 일상 가까이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하나증권

장애인 직무 마련부터 교육·채용까지
안정적인 자립 돕는 단계별 지원 설계
임직원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도

취업준비청년 건강검진, 멘토링 지원
임직원-대학생-청소년으로 배움 이어

정기적 봉사로 지역복지시설과 동행
임직원 가족들과 영종도 해안 플로깅
산림생태계 복원 협력... 푸른 숲 조성
해외사업서 확보한 탄소배출권 활용

◆함께 일할 수 있도록...교육부터 정착까지 있는 일자리

청년의 자립을 돕는 일은 일할 기회를 만드는 데서 시작한다. 하나증권은 장애인 청년에게 적합한 직무를 마련하고 교육부터 채용, 입사 후 정착까지 연결하는 청년친화 고용 모델을 구축했다. 업무를 익히는 과정과 실제 직장생활 사이에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설계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력해 전문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하나증권 실무진이 참여하는 현장 밀착 교육을 운영한다. 수료생을 대상으로 채용을 진행한 뒤에는 직무 적응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전담 장애인 담당자도 지정해 입사 이후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다.

시험 운영을 통해 인사실과 인재개발실 등에 채용된 장애인 청년들은 임직원 교육 프로세스와 인사 데이터 입력 등 정확성과 집중력이 필요한 업무를 맡고 있다. 하나증권은 이 과정에서 수집한 사례를 바탕으로 채용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해당 모델은 금융투자협회가 진행한 금융기관 청년고용 간담회에서 주요 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강성목 하나증권 대표이사는 "장애인 청년들과 기존 직원들이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상생 ESG 고용 모델을 고민했다"며 "장애인 청년에게 적합한 직무와 기회를 제공해 기업의 생산성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청년이 직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려면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이해도 중요하다. 하나증권은 채용 지원과 함께 임직원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하나증권은 시각장애인 전문예술단 '한빛예술단'을 초청해 문화체험형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일 더하기 우리'를 진행했다. 임직원 200여명이



지난 6월 26일 여의도 하나증권 본사 한마음홀에서 시각장애인 예술단 '한빛예술단'이 공연하고 있다. /하나증권



하나증권 임직원들과 가족들이 지난 4월 18일 인천 영종도 일대에서 해안 플로깅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점심시간을 활용해 음악 공연을 관람하고 전문 강사의 교육을 들으며 장애인을 함께 일하는 동료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년의 도약 돕는 하나증권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는 일자리 정보뿐 아니라 건강과 생활을 돌볼 여건도 중요하다. 하나증권은 청년케어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검진과 진로·취업 멘토링, 금융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건강검진 지원은 2023년 서울광역청년센터와 연계해 시작했다. 건강상의 이유로 미취업 상태이거나 취업이 지연되고 있는 서울 거주 청년이 대상이다. 2024년에는 100명을 지원했으며, 참여자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92점을 기록했다. 2025년에는 지원 인원을 120명으로 늘렸다.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현직자의 경험을 접할 기회도 마련했다. 서울시 청년정책박람회와 취업멘토링페스타에서는 '커피챗 타임'을 통한 현직자 멘토링과 모의면접을 진행했다. 서울광역청년센터와는 2024~2025년 총 8회에 걸쳐 청년 약 700명에게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금융교육을 실시했다.

'하나증권 청년봉사단'은 이러한 배움을 다음 세대에 전한다. 임직원이 대학생에게 진로와 취업 멘토링을 제공하고, 대학생은 자립준비 아동과 청소년의 학습을 지도한다. 2024~2025년 총 10개 팀이 운영됐다.

임직원에게는 자신의 경험을 나눌 기회가, 대학생에게는 진로를 고민하고 봉사에 참여할 기회가 된다. 아동과 청소년은 학습 지도를 받으며 성장의 도움을 얻는다. 서로 다른 세대가 각자 가진 역량을 보태는 이 프로그램은 청년 지원과 미래세대 교육을 하나의 활동 안에 담고 있다.

◆단발성 아닌 '지속연결'의 약속

세대 간 나눔이 경험과 지식을 전하는 활동이라면, 지역사회 봉사는 꾸준한 만남을 통해 필요한 도움을 살피는 일이다. 하나증권은 본점 주관으로 기존 사회복지시설과의 인연을 이어가는 '지속연결' 봉사를 운영하고 있다.

봄에는 서울맹학교 학생들과 나들이를 함께하고, 여름에는 충남 금산의 아동양육시설 향림원을 찾아 물놀이와 급식 지원 봉사를 진행한다. 가을에는 청주종합복지관에서 식사를 돕고, 대구 중증장애인시설 애광원에서는 산책과 말벗 봉사에 참여한다. 겨울에는 인천 쪽방촌에 연탄 등 겨울나기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한다. 2023년부터 이어온 활동으로,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이웃의 필요에 맞춰 찾아간다.

본부와 부서 단위에서도 정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하나증권은 2024년 3월부터 22개 기관과 결연해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매년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다. '1인 1봉사'를 마친 본부의 연계 사회복지시설에는 회사가 소정의 기부금을 더해

직원들의 참여를 뒷받침한다.

FICC본부는 청파노인복지관을 매월 두 차례 이상 찾아 급식 지원을 이어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5년 서울시의장 표창을 받았다.

하나증권은 기존 시설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사회공헌처를 탐색하는 '새로연결' 활동도 추진하고 있다. 익숙한 이웃과의 약속을 지키는 한편,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참여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다.

◆해안의 쓰레기부터 숲의 생명까지...금융으로 보태는 환경 실천

이웃을 돌보는 활동은 함께 살아가는 공간을 지키는 일로 확장됐다. 하나증권은 2024년부터 아동양육시설 봉사활동 등을 함께해온 하나금융티아아와 인천 영종도 해안 플로깅을 진행했다. 지역의 해양·갯벌·도시 생태계 보전 활동을 이어온 인천녹색연합도 참여했다.

임직원과 가족들은 해변에 밀려온 폐플라스틱과 페트병, 비닐, 스티로폼 조각을 수거하고 산책로와 제방 주변의 쓰레기를 정리했다. 해양 오염을 줄이는 정화 활동이자, 생활 속 쓰레기가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살피는 자리였다.

생태계 보전에는 전문가와의 협력도 더한다. 하나증권은 지난 4월 국립수목원과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및 산림생태계 복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산림생물 연구와 서식지 보전, 희귀종 복원 및 방사 등을 협력 분야로 삼았다. 국립수목원과 함께 추진하는 '꼬리명주나비' 복원 사업도 그중 하나다. 앞으로 임직원과 고객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교육과 체험형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직접 현장을 돌보는 활동과 함께 금융회사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환경 사업도 지원한다. 하나증권은 방글라데시 태양광 정수시설 보급사업과 인도 조립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인도 마디아프라데시주에서는 모목 260만 그루 식재를 완료했다. 온실가스 흡수와 생태계 보존에 더해 지역사회 고용기회 창출도 기대되는 사업이다.

해외 사업에서 확보한 탄소배출권은 국내의 환경 실천에도 활용됐다. 하나증권은 대전하나시티즌의 '탄소중립 실천 축구 경기' 추진 과정에서 직접 감독 외의 잔여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방글라데시 태양광 정수시설 보급 프로젝트의 자발적 탄소배출권을 활용한 상쇄 업무를 수행했다. 환경사업을 지원하는 금융 역량을 구단의 탄소중립 실천과 연결한 사례다.

하나증권은 장애인 청년 채용과 지역사회 봉사를 이어가며 참여형 환경 활동도 확대할 방침이다. 일할 기회를 마련하는 회사의 지원, 이웃을 다시 찾는 직원들의 시간, 생태계를 지키는 전문가의 역량을 모아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을 실천해 가고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AG 2연패' 안세영, 다시 세계 무대로...덴마크·프랑스오픈 출격
▲'어깨 부상' 수영 김우민, 수술 피했다...전국체전 건너뛰고 재활 전념
/사진 뉴스스

▲농구연맹, 'AG 금메달' 남자 농구팀에 포상금 1억원 지급
▲KIA-LG, 오늘 '3위 결정전'...14일 막 오르는 '가을야구'

▲태권도 기대주 김향기, 파리 그랑프리 여자 49kg급 은메달
▲'아시아게임 금메달' 베스테를로 양민혁, 벨기에 무대에서 데뷔골